



자유주의 정보 19-151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lasdair Macleod,

What the Number Crunchers Get Wrong about the "Velocity of Money"

20 July, 2019

“돈의 속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순환의 속도'라는 발상은 화폐의 양적 이론에서 비롯되었는데, 화폐의 양적 변동과 일반적인 물가 수준의 변화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환의 방정식에 명시되어 있다. 순환의 속도를 이루는 요소는 돈, 속도, 총 지출, 즉 GDP이다. 아래의 식은 여태까지 순환의 속도를 교환의 방정식 내에서 명시하는 가장 잘 알려진 방식이다.

돈 x 순환의 속도 = 총 지출(또는 GDP)

우리가 돈과 총 지출을 모두 수량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결국 속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왜 속도가 달라지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방정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수가 포함된 한 변수가 항상 방정식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경우에만, 완전히 관계없는 두 개의 변수를 해당 방정식에 대입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교환의 방정식은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시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분석가들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오며, 현대의 통계학 및 컴퓨터에 의한 분석모델들에 대한 의존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순환의 속도에 관한 명제는 소위 경제를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통계학자들 스스로가 칭하는 진보일 뿐이다. 그러나 런던 경제대학원에서는 이러한 믿음에 기반하여 MONIAC(화폐 기반 국민소득 분석 컴퓨터)으로 유동역학에 기반해 영국의 경제를 모델링하였다. 뿐만 아니라 MONIAC의 모델에 더하여, 최근의 컴퓨터 모델들 또한 경제를 모델링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순환의 속도에서 유효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준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그의 저서 '인간행동'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비판했다:

수학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개인들이 이루는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서 시작하는 것을

거부한다. 대신에 그들은 기계적 패턴에 따라 산출된 순환의 속도라는 잘못된 개념을 도입한다.

미제스의 비판은, 경제학은 물리학이 아닌 사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철학적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수학적 관계는 회계와 관련된 부문에만 엄격히 국한되어야 하며, 앞서 그가 말한 것처럼 '인간행동'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제 속도의 개념이라는 익숙한 통념에 깊이 경도되어 있다. GDP, 즉 교환 방정식의 오른쪽도 마찬가지이다.

GDP는 단지 회계상의 개념일 뿐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통계학자들은 GDP 내의 수치가 주는 의미들을 취사선택해서 소비재에는 유리하고 자본 투자에는 불리한 방식으로 치우치게 한다. 결정적으로, 통계학자들의 GDP에 대한 분석은 우리에게 성공, 실패, 그리고 인간의 필요와 욕구로 이루어진 변화무쌍한 경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것이 경제적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므로 돈의 속도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통계학자들은 돈의 순환 속도라는 것이 교환 방정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한 변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what-number-crunchers-get-wrong-about-velocity-money>